

魯迅 작품의 二重 치유 기능 분석*

전공** · 조팽엄***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무의식적인 자아치료 |
| II. 의식적인 사회구제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문학은 인식기능, 교육기능과 심미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은 문학의 치료기능은 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류학의 관점에 의하면 문학의 출발은 원래부터 ‘치료’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인식기능, 교육기능과 심미적 기능보다 치료 기능에 있다.

중국에서의 문학치료 연구는 1998년에 발표한 叶舒憲의 <文學與治療— 关于文學功能的人类學研究>와 <文學治療的原理及實踐>으로부터 시작했다. 叶舒憲은 처음으로 ‘문학치료’라는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문학치료의 역사적 배경, 가능성, 정신의학과와의 관계 등을 본격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학자들이 ‘문학치료’의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왔다.

* 2013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생

‘오사운동’ 시대에 형성된 신문학은 처음부터 사회를 ‘치료’하는 기능을 추구했고 문학가들도 자연스럽게 ‘사상 — 문화’ 치료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문학치료’는 ‘오사운동’ 시기동안 지속적으로 ‘과학과 민주’의 구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시대에鲁迅은 ‘문학치료’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제일 저명한 학자였다.

鲁迅이 仙臺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대해서는 줄곧 일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1978년에 출판된 《鲁迅在仙臺的記錄》이며, 鲁迅이 1904년 9월부터 1906년 3월까지 仙臺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들과 그 동안 배웠던 의학 지식이 나중에 그가 쓴 문학 작품에 어떻게 심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의 상세하고 잡다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자료집은 많은 중국학자들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의학에서 문학으로 전공 분야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경험은 나중에 鲁迅의 연구자들에게 더 폭넓은 사고공간과 근본(根本)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할 수 있는 경로를 남겨주었다. 이 글은 문학 창작의 치료 기능에서 출발하여 의학적인 시각에서 鲁迅의 창작동기의 재해석을 통해서 鲁迅이 의학을 그만두고 문학 창작에 몰두하게 된 잠재 원인을 다시 이해하려고 한다.

문학가로서, 소설가로서, 사상가로서,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한마디로 鲁迅은 마치 손에 비수를 든 투사와 같이, 당시 중국 사회의 봉건사상, 혹은 당시 중국 백성의 저열성을 해부했다. 이때의 鲁迅은 국민적인 정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상의사(思想醫師)의 역할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환자 혹은 정신적 환자 이미지가 가득 차 있고 그런 인물들이 나타내는 각종 증상, 심지어 치료의 경험도 많이 담겨 있고, 유학 생활 중에 배웠던 의학 지식, 실제 생활 중 겪은 질병 치료, 가족의 병고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다시 문학 요소가 되어 작품 곳곳에 재현되어 있다. 이런 신체의 질병, 가족의 불화, 그리고 각성한 다음에 느껴진 정신적인 고독과 고통이, 그로 하여금 문학의 창작

공간 안에서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과 치료의 원천을 찾게 만든 것이다. 국민을 구제하면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와 환자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배회했다. 본 논문은 먼저 魯迅의 의식적 사회 치료의 창작 동기를 살펴본 후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인 자아 치료가 실현된다는 것을 밝히고 결국에는 魯迅은 이 창작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의식적인 사회구제

魯迅은 13살 때 가정에 큰 변고가 생겼다. 부친의 지병 때문에 지방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다. 그래도 병세가 갈수록 심해지셔서 어린 魯迅이 전당포와 약국을 드나들면서 냉대와 무시를 많이 당했다. 결국은 부친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이 시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魯迅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원망과 자책으로 변했으며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의학을 배우는 길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因为这些幼稚的知识, 后来便使我的学籍列在日本一个乡间的医学专门学校里了。我的梦很美满, 预备卒业回来, 救治像我父亲似的被误的病人的疾苦, 战争时候便去当军医, 一面又促进了国人对于维新的信仰。¹⁾

이런 유치한 지식은 그 뒤 내 학적을 일본의 어느 지방 도시 의학전문 학교에 두게 만들었다. 내 꿈은 아름다웠다. 졸업하고 돌아가면 내 아버지 처럼 그릇된 치료를 받는 병자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리라. 전시에는 군의를 지원하리라. 그런 한편 유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앙을 촉진시키리라.²⁾

이때 魯迅은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강력한 사회 책임감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을 중의(中醫)로 고치지 못했으므로 魯迅

1) 魯迅, <呐喊·自序>, 《魯迅全集》第一卷, 人民文学出版社, 1981, 415쪽.

2) 김시준 역, 《루쉰(魯迅)소설 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2쪽 참고.

은 자연과학에 기초한 서양의학에 희망을 걸었다. 이때의 魯迅은 ‘救死扶傷’(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돌보다)의 책임감을 가진 의사의 의무를 다 하였고 자신이 사회를 구제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魯迅이 실천하고 싶은 첫 번째 의식적인 사회구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결국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周樹人이란 사람은 결국은 의사가 되지 못하였고 붓을 들고 혁명의 투사 魯迅으로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周樹人은 사회를 구제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다만 방식을 바꿔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였다. 수술 칼로 병자의 환부를 도려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사상과 정신적인 환부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유학 시절에 발생한 ‘슬라이드 영사기 사건’(幻燈機事件)은 魯迅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국민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这一学年没有毕业，我已经到了东京了，因为从那一回以后，我便觉得医学并非一件紧要事，凡是愚弱的国民，即使体格如何健全，如何茁壮，也只能做毫无意义的示众的材料和看客，病死多少是不必以为不幸的，所以我们的第一要着，是在改变他们的精神，而善于改变精神的是，我那时以为当然要推文艺，于是想提倡文艺运动了。³⁾

그 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도쿄로 왔다. 이 일이 있는 후로 의학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겁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강하고 우람한들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병으로 죽어 가는 인간이 많다 해도 그런 것쯤은 불행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데는, 당시 생각으로, 당연히 문예를 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문예운동을 제창할 염이 생겨났다.⁴⁾

만약에 우리가 病態(병에 걸린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정상

3) 魯迅, <呐喊·自序>, 《魯迅全集》第一卷, 人民文学出版社, 1981, 417쪽.

4) 김시준 역, 《루쉰(魯迅)소설 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3쪽.

을 평균치 혹은 대다수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죽인 장면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대다수 사람은 病態의 정신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와 달리 행동한 소수의 사람을 病態로 볼 수도 있다⁵⁾. 그러나 이때의 魯迅은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魯迅은 이러한 세상 사물에 대해 감각이 마비되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구경꾼들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했다. 자신의 강직한 도덕의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고치려고 하였으며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된 방법이 문예창작이었다. 글은 魯迅의 두 번째 의식적인 사회구제라고 일컬어진다.

문예로 국가를 구하는 꿈을 품고 있는 魯迅의 이때 심리 상태는 적극적이고 명랑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문예의 ‘移情機能’(남의 심정을 자신과 공감하게 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계몽의 사상, 이상적인 인성을 어리석은 중국 민중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국민의 정신적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新生》 잡지 창간의 실패, 《域外小說集》의 판매가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魯迅은 ‘文藝救國’의 이상에서 약 3년 동안(1906~1909) 고생스럽게 발악했다. 이 생생한 현실은 탁상공론의 몽환을 철저하게 깨지게 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는 수렁에 빠졌다. 그래도 여전히 문학창작에 몰두하게 된 까닭은 低劣한 국민성을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진단의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대 지식인이 마땅히 본인의 위치에 안주하고 ‘치료자’의 위치에서는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⁶⁾. 그래서 문학 창작이 설령 치료의 처방을 찾지 못하더라도 구제의 주 의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마치 임상 검사하는 의사와 같이 설령 손에 효과적인 약이 없더라도 하나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주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사회의 관심을 끈 다음에 치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魯迅의 목적이라 볼 수 있고 사회를 구

5) 王友琴, 《魯迅與中國現代文化震動》, 湖南教育出版社, 1989, 125쪽.

6) 曹禧修, <“診者”與“治者”的角色分離>, 《文學評論》 3, 2006, 128쪽.

제하는 그의 주체의식이 여전히 강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먼저 魯迅은 일련의 病態적인 인물 형상을 소설 중에서 빚어서 만들었다. 이런 病態는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상한 언동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화근도 포함된다. 《吶喊》과 《彷徨》 중의 25편 소설 중 신체적 질병 및 정신적인 이상행위에 관련된 작품이 최소한 9편이 있고 아래의 도표로 정리 되었다.⁷⁾

时间	作品	人物	身份 / 年齡 / 地方	病	结果
1918.4	《狂人日記》	狂人	知識分子/青年 / 农村	迫害狂, 精神病	治愈 (西醫)
1919.4	《藥》	華小栓	鎮民/青年/城镇	癆病	死(中醫)
1920.6	《明天》	宝儿	鎮民/三岁孩童 / 城镇	热病	死(中醫)
1922.6	《白光》	陳士成	知識分子/老年 / 县城	精神病	死(不醫)
1924.2.7	《祝福》	贺老六	村民/青年/山村	伤寒	死(中醫)
1924.2.16	《在酒楼上》	順姑	市民/青年/S城	肺病	死(中醫)
1925.3	《長明燈》	六順	知識分子/中青年 / 吉光屯	精神病	瘋(不醫)
1925.10.17	《孤獨者》	魏連殳	知識分子/中青年 / S城	癆病	死(不醫)
1925.11.3	《弟兄》	靖普	知識分子/青年 / 城市	疑为猩红热 實为疹子	治愈 (西醫)

위의 도표를 보면 환자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들 중에

7) 黎保榮, <魯迅小說中“病”的文化闡釋>, 《晋阳學刊》 5, 2004, 109-111쪽.

신체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농민 혹은 보통 시민이고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정신 이상으로 비극적인 파국에 이른다. 이런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은유적인 상징성을 띤다. 예를 들어 《白光》 중의 ‘陳士成’, 그리고 《孔乙己》 중의 ‘孔乙己’는 과거 제도 때문에 생긴 집착과 미련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이것은 바로 봉건 전통이 사람을 깊이 해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狂人日記》 중의 ‘狂人’은 봉건 전통을 상징하는 컴컴한 집에 의해 커다란 압박감을 받았으며, 이런 식의 구도는 노신의 또 다른 소설 《長明燈》에서도 나타나는데 ‘癲子’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마을 사당의 장명등을 끄려고 하나 수천 년간 내려온 봉건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사당에 있는 빈방에 가두어지게 된다. 이러한 완고함 때문에 계몽가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孤獨者》 중의 ‘魏連殳’는 중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하다가 실직한 후 자신의 양심과 인간성을 버린 대신 명예, 지위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다 실패해 죽을 때까지도 이 세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頭髮的故事》 중의 ‘N선생’은 몇 년 전에 머리 뒤로 내렸던 변발을 잘라버리고 중학교 주임을 맡았을 때 관료들(감독자, 관리자)과 타인의 냉소, 조소, 박해, 모함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는 계몽가의 고독을 은유했다.

이런 인물들의 이상한 언동에 대해 사실적이고 생동적인 묘사는 바로 魯迅이 ‘치료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만든 증상 보고서였다. 국민정신의 고질병, 국민 문화의 화근 앞에서 魯迅은 임상 진단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성격을 띤 그의 문학 작품들은 봉건성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구체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Ⅲ. 무의식적인 자아치료

사회를 구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魯迅은 궁극적으로 문학 창작을

택하였다. 문학은 이론적인 분석 기능이 부족하고, 순수 감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천박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정신적인 고민이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치료 기능을 지니고 있다. 魯迅에게 이런 치료 기능은 국민성을 고치려고 하는 그의 소망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의 괴롭고 고독한 마음을 풀어내는 하나의 효과적인 루트를 제공하였다.

李紹華(1993)은 魯迅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12~1921년 사이에, 魯迅은 대체적으로 건강하였다. 비록 ‘감기’, ‘위통’, ‘복통’, ‘치통’ 등의 질병이 있었지만 일과 공부에 큰 지장이 되지는 않았다. 1922~1931년에 들어 건강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치주염’, ‘기관지 천식’을 앓았고 1923~1925년 일찍이 여러 번 폐병이 발병하였다. 결국에는 ‘늑막염’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무척 힘들었다. 1932~1936년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⁸⁾. 또한 魯迅의 아들 海嬰도 줄곧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인해 그의 병리학 지식이 풍부해졌고 그의 창작 동기와 작품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창작에 종사하기 시작한 魯迅에게 《新生》 창간 실패는 적지 않은 좌절을 주었다. 이후 한 명의 사상 계몽가로서의 고독과 적막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적막함이 나날이 자라 커지면서 마치 독사처럼 나의 영혼을 칭칭 감았다’(這寂寞又一天一天的長大起來, 如大毒蛇, 纏住了我的靈魂了)⁹⁾라고 말하였다.

이런 내적인 고통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억압과 분열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魯迅의 이성은 감성보다 강하였다. 문학 창작의

8) 李紹華, <關於魯迅日記中的病歷記載>, 《魯迅研究月刊》 8期, 1993, 31-35쪽.

9) 魯迅, <吶喊·自序>, 《魯迅全集》 第一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416-417쪽.

영역에서 문자의 재조합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작품 속의 인물로 표출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긴장감과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글쓰기가 작가의 자아를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 叶舒憲은 《文學治療的原理及實踐》에서 작가가 언어의 창작을 통해 자기의 망상을 재생할 수 있다 고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아치료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우리는 魯迅이 만들어낸 여러 유형의 病態적인 인물을 통해 이런 문학적 치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魯迅 작품 중에 나온 지식인들이 대부분 편집광이며 고독하고, 고결하며 妄靈스러운 성격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창작주체(魯迅)의 주관적인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魯迅은 현대 지식인으로서 작품 중에서 이런 성격 특징을 과대하고 극단적으로 처리하였다. 심지어 病態적이고 비정상적인 양상을 띠게 하였다. 문학예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인물들이 아마도 더 전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작주체는 바로 문학의 허구적 환상 중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기 때문에 자아를 찾는 동시에 자아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신을 쪼개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균형감을 회복하게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치료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叶舒憲은 《文學治療的原理及實踐》에서 ‘고대에 巫醫의 문학치료 방식은 주문에 편중하며 치료효과는 주로 언어의 마술적 힘에 의거하였는데 현대의 문학 치료방식은 서술적인 이야기에 편중하며 치료효과는 환상의 전이와 대체 작용에서 기원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마땅히 문학의 허구성을 가리킨다. 魯迅이 작품의 줄거리를 세울 때는 마치 하나의 ‘치료’의 패턴을 만든 것 같은데, 즉 ‘발병 — 치료 — 삶과 죽음’과 같은 패턴이다. 예를 들어 《狂人日記》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동

10) 叶舒憲, <文學治療的原理及實踐>, 《文藝研究》 6期, 1998, 78-85쪽.

11) 같은 글.

생의 중병 — 형이 의사를 불러서 진단 — 약을 복용함 — 치유'라고 볼 수 있고; 《明天》과 《弟兄》의 경우에는 '발병 — 의사를 불러서 치료 — 약을 복용함 — 사망'이라는 줄거리이고; 《父親的病》도 이와 유사하여 '아버님이 병에 걸림 — 의사를 불러서 치료 — 병이 위중해서 사망'이라는 상황 이었다¹²⁾. 이런 서사(敍事)의 패턴은 현실 생활의 경험에서 기원되고 상상을 통해 예술적인 가공을 거친 산물이다. 허구의 인물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만드는 것은 바로 문학으로 자기심리적인 부정정서를 전이하고 문학치료를 실현하는 하나의 경로다. 魯迅은 1933년에 집필한 수필 <나는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속에서 '나는 병든 사회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로 부터 소재를 찾았다. 그 의도는 질병과 고통을 거론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魯迅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스스로 서술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서술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독자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산문시집 《野草》에도 문학치료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野草》를 창작했을 때는 작가의 고민이 집중된 시기이며 《野草》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잡문집 《華蓋集》과 《華蓋集序篇》, 그리고 《墳》 중의 일부분 잡문도 썼고, 소설집 《彷徨》도 창작하였다. 여러 가지의 문학 장르가 마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용기와 같이 제각기 알맞은 내용물을 수납하는 것과 같다. 잡문이나 소설이 변증법적과 형상적인 기법으로 일종의 리얼리즘 정신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산문시 같은 장르는 추상적으로 낭만주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장르의 각도에서 보면 소설보다 산문시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더 직설적이고 통쾌하다.

'오사운동'이 끝난 후 魯迅은 암울한 현실적 배경으로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1923년 7월에 동생인 周作人과 사이가 나빠지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시기에 본처 朱安에 대해 애정도 없고 許廣平과의 감정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감정적으로 매우 메마른 상태였

12) 郭茂全, <魯迅醫學知識與文學創作之關係探微>, 《甘肅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1期, 2004, 15쪽.

다. 또한 다양한 내적, 외적요소들이 내면 활동이 활발한 작가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여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¹³⁾ 심지어 1924년에 李秉中에게 쓴 편지 중에 ‘나도 항상 자살할 생각을 하고 항상 자살하고 싶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魯迅이 극도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 때 사회적 상황이 암울해지면서 魯迅의 내면의 사상충돌도 심해졌고 게다가 감정적, 신체적인 고통까지 겹쳐서 극단적인 불안상태가 이어졌고 정신적인 안정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는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로 작용했다. 심리분석의 시각에서 보면 오랜 고민과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魯迅 역시 글을 통해 그런 부정적인 심적 요인을 해소시켜서 마음의 균형감을 찾아내었다. 胡福君(2001)에 따르면 魯迅은 《野草》에서 괴로운 심리 상태를 표출해서 주체정신의 고통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재난을 제거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¹⁵⁾

밤이 깊어 인기척이 없을 때 홀로 적막한 방에서 붓을 들고 급히 글을 쓰는 魯迅의 모습이 다시 우리 눈앞에 떠오르는 것만 같다. 그 답답한 마음이 결국은 작품 속에 각종 상징적인 환경과 은유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소멸됨으로써 극복되었다. 《死火》 중의 ‘얼음 계곡’, 《失掉的好地獄》 중의 ‘지옥’이 모두 당시 어두운 사회의 상징이고, 《狗的駁問》 중의 ‘동과 은’, ‘관료와 평민’은 현실의 삼엄한 등급제도와 빈부의 대립상태를 은유하며, 《立論》 중의 ‘초등학교의 교회’가 당시 사상계와 교육계의 척도이며, ‘개미’와 ‘파리’는 각종 인물을 비유한다. 현실과 떨어진 곳에서 잠시 노닐면서 글 속에 생생히 구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문학창작이 시작되면 주체의 심리 영역이 대단히 넓어지고, 쌓였던 감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심리영역으로 분배되면서 주체의 심리 요소들이 서로 균형

13) 武淑蓮, <痛苦：生命的最高顏色>, 陝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03, 18쪽.

14) 閻慶生, 《魯迅創作心理論》,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6, 226쪽.

15) 胡福君, <魯迅的創作心態與野草>, 《湘潭大學社會科學學報》4期, 2001, 87쪽.

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IV. 나오며

작가의 주체적인 심리상태와 작품 창작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鲁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별세가 그로 하여금 의학을 배우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低劣한 국민성 치료가 더 급하다는 인식으로 문학창작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鲁迅은 의사와 환자, 자신과 작품 중 인물이라는 이중의 역할 사이에서 배회하였다.

《藥》과 《明天》 같은 작품에서 鲁迅은 작가로서 바른 정신을 가진 의사의 역할을 맡아 작품 중 인물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묘사하였고 《孔乙己》와 《孤獨者》 속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투사되어 있다. 한편 《狂人日記》 중의 ‘狂人’은 정신 질환자로 등장하였다. 王富仁은 《‘狂人日記’細讀》 중에서 ‘狂人’이 병에 걸릴 때부터 나을 때까지의 과정은 바로 중국 전통 봉건문화의 정신적인 반역자가 겪어야 되는 사상과정과 맥락이 상통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작가 鲁迅은 당시에 사상 계몽자로서 주변 문화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대다수 어리석은 민중을 계몽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민중들은 오히려 소수의 계몽주의자들을 미치광이로 여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래 어리석은 민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각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의지할 곳도 없고 고독과 괴로움만 느껴져서 ‘狂人’을 빌려서 이런 느낌을 확대시켜서 病態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가 鲁迅과 작품인물 ‘狂人’이 서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문학치

16) 王富仁, <狂人日記・細讀>, 《鲁迅研究月刊》 11期, 1994, 39-49쪽.

료'적 견지에서 魯迅 작품 속에 서술한 '치료'의 이중 의미를 분석했다. 또한 魯迅의 '의학에서 문학으로의 전향'이라는 轉變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식적 사회 치료를 위한 魯迅의 창작동기를 밝혀내고, 그 의식적 사회치료의 배경 아래 무의식적 자아치료를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찾게 되었음을 서술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魯迅 연구에 있어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작품 중에 魯迅 자신의 정신적인 고민과 괴로움을 문학 창작에 쏟아 부어서 문학의 치료기능이 실현된 것이다. 의사와 환자, 현실과 몽상, 자신과 작품 중의 인물, 이런 이중 세계에서 배회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魯迅의 작품이 더 철저하게 어두운 사회를 들추어내었고, 더 가차 없이 低劣한 국민성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오랫동안 많은 사색과 배회를 했지만 魯迅은 문예와 혁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회를 구제하려는 그의 주체의식은 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를 문학치료적 실천이라 규정하고 그 것이 갖는 문학치유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의식적인 사회구제'와 '무의식적인 자아치료'라는 구분에 '문학치료'를 魯迅의 작품 분석에 차용하여, 창작을 통해 중국 국민들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고통도 치료한다는 치료의 이중 의미를 제시했다.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힘든 마음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가능한 정서적·인지적 탈출구를 담고 있는 문학치료를 활용하여 그 문제를 분석하게 하고 해결책까지 찾을 수 있다.

<參考文獻>

- 고점복, <魯迅 雜文의 思惟 樣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점복, <루쉰(魯迅)과 거리의 몽상>, 《中國語文論叢》 52輯, 2012.

- 김시준 역, 《루쉰(魯迅)소설 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진공, <示衆, 三突出, 희생양>, 《중국문학》 제37집, 2002.
- 루쉰 지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2권, 외침·방향》, 그린비, 2010.
- 신지은, <도시 산책자: 자기 유희와 함께하기의 경계에서 방랑/황하는 존재>, 《문화와 사회》 제6권, 2009.
- 이보경, <루쉰(魯迅)의 문명비판과 신체담론 -“변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56집, 2010.
- 郭茂全, <魯迅醫學知識與文學創作之關係探微>, 《甘肅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4.
- 藤井省三, 《魯迅比較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7.
- 黎保榮, <魯迅小說中“病”的文化闡釋>, 《晉陽學刊》 5, 2004.
- 魯迅, <吶喊·自序>, 《魯迅全集》第一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 魯迅, <連環畫瑣談>, 《魯迅全集》第六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 魯迅, <門外文談>, 《魯迅全集》第六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 魯迅, <文藝大衆化>, 《魯迅全集》第七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 任葆華, 白建西, <文學療治: 魯迅與沈從文比較研究的別一種視角>, 《學術論壇》 第2期, 2006, 2.
- 武淑蓮, <痛苦·生命的最高顏色>, 陝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03.
- 閻慶生, 《魯迅創作心理論》,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6.
- 王富仁, <狂人日記·細讀>, 《魯迅研究月刊》 11, 1994.
- 王友琴, 《魯迅與中國現代文化震動》, 湖南教育出版社, 1989.
- 曹禧修, <“診者”與“治者”的角色分離>, 《文學評論》 3, 2006.
- 叶舒憲, <文學與治療—關於文學功能的人類學研究>, 《中國比較文學》 2, 1998.
- 叶舒憲, <文學治療的原理及實踐>, 《文藝研究》 6, 1998.
- 叶舒憲, 《文學與治療》,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 周作人, <人的文學>, 《周作人精品精選》, 長江文藝出版社, 2003.

胡福君, <魯迅의創作心態與野草>, 《湘潭大學社會科學學報》 4, 2001.

<中文提要>

诞生于“五四”时代的新文学,一开始便在寻求“疗治”社会的功能,文学家们也顺理成章地承担了“思想—文化”医疗工作者的社会角色。“文学疗治”在“五四”时期一直与科学和民主的口号紧密地联系在一起。在这一历史性的潮流中,鲁迅无疑是“文学疗治”行动中最为著名的一位。

鲁迅在仙台的学习和生活的经验给众多的中国学者重新解剖鲁迅提供了更广阔的思考空间和追溯途径。本文试图从医学的视角来解释鲁迅的创作动机,并从文学创作的疗治功能出发,重新理解鲁迅弃医从文的潜在原因。

鲁迅所希望实践的第一次有意识的社会疗治是面对父亲久治无效的现实,为成为一名救死扶伤的医生,而确定的社会疗治方案。然而这种方案最终没能赋予实践,“幻灯机事件”给鲁迅带来了巨大的精神冲击,并使他意识到,疗治国民精神之顽疾似乎显得更加刻不容缓。他更希望以自己强烈的道德意识来改正他们的位置,唤醒他们的良知。采取的方法就是文艺创作。我们称之为鲁迅的第二次有意识的社会疗治。鲁迅在他的小说创作中塑造了一係列病态人物的形象。对于这些国民精神的顽疾,国民文化的劣根,鲁迅饰演了一个临床诊断者的角色。在各种各样的疗治方法中,鲁迅最终选择了文学创作,是因为这种疗治功能不仅符合其改变国民性格的主观愿望,同时在客观上也给他提供了一个释放郁闷和孤独的有效渠道。他在文学创作的领域里,通过文字的组合,把自己的情感对象化在作品中,从而消除了内心的紧张和痛苦。在这个自我剖析的过程中,鲁迅的思想极其苦闷,徘徊。对创作主体来讲,正是因为文学虚构的幻想中,排泄了自己的负面情绪,实现了自我疗治的过程。鲁迅就是以文学作为诊断与疗治中华民族精神痼疾的手段,对国人进行了有效的思想启蒙。他深切地关注人生,把“疗治病苦”作为他文学活动的终极目的,并且一生都在践履这一艺术目标。同时,作为创作主体

的魯迅也在寻找自我的同时，超越了自我。

Key Words：鲁迅(Lu Xun)，作品(works)，治疗(cure)，文学创作(literary creation)，价值(worth)